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

문 대통령, 세계인권의 날 70주년 기념식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대한성공회 서울대 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 기념식 축하사에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기본 계획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과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전문과 각 조항에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다”며 “이어지는 30개의 조항은 국가를 비롯한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다”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도 힘을 보탤다. 우리가 모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런 투쟁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한국 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들과 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이곳이었다”며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민주주의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지막이 성당을 채웠고, 그렇게 시작된 민주 항쟁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아동폭력 문제를 열려하고 계신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가 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체제·평화정착 민족 모두의 인권 위한 것 인권 무시 때 야만 되돌이 역사적 교훈 잊지 말아야”

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인권위의 노력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우리 자신이 소중히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그 가치를 발한다. 국가 인권위의 노력은 우리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 현안에 눈과 귀를 닫고 관료화 되어가다가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들 편에 섰던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

약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의 첫 초안을 작성한 존 험프리의 말과 현재의 세계인권선언문 서문을 거론하며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자,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변화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인권을 무시할 때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이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홍 “홍남기-김수현, 적극 소통 경제 부처 장관 수시 회동”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게 될 것이며, 경제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수시로 회동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체인 이른바 ‘서별관회의’ 부활 보도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홍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직후 빠른 시일 내 ‘서별관회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홍 장관이 오늘 임명장을 받고, 김 실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 일을 하게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이어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관련 장관들이 수시로 만날 예정”이라며 다만 “거기에 무슨 ‘서별관 회의’ 등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장소에 모여 과거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일단 장소도 (서별관)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김제〉	교월동 월봉마을 150000
교월동 송촌마을 130000	교월동 봉월마을 420000
교월동 여연마을 200000	교월동 제월제마을 150000
교월동 울교마을 200000	명덕체내마을(윤아현) 250000
교월동 신덕신기마을 200000	(12월 11일자)

연말 불우이웃 위한 따뜻한 성금

건협 전북도회, 전북도에 20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추운 날씨와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따뜻한 연말, 불우이웃돕기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10일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2009년부터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지역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 총 기부 누적액은 2억3,000여만원이 된다.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슬로건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람으로 미래건설’처럼 도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나눔 문화 확산으로 지역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건설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매년 성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준데 대하여 감사하다.”며, “사회전반의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건설관련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중·고·대학생에게 매년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해양레저 관광 1천만 시대 연다

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기본·실시설계 10억 확보

전북도가 추진하는 서해안 최대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일 확정된 2019년 정부예산에 해양관광거점시설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43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서해안권 해양거점시설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중간 발표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와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인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의 구 정수장(2월 폐지) 부지(5만4,000㎡)는 비용면

적비율(B/C)이 1.03으로 경제성을 입증 받았다. 해당 부지는 내수면과 해수면을 모두 활용해 조성될 경우 해양데크, 정수장활용(존치), 캠핑장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 가치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전북도는 고군산 연결도로 전면개통과 새만금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 어느 때보다 서해안이 집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유일의 해양레저체험시설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사업이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향하고 인프라 조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전북도 해양·수산업이 신성장 동력화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